

書 評

이 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으로

민음사, 서울, 1994, 276쪽.

최근 들어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해외 지역 연구와 세계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으로』라는 책이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 외에도 교학연구사를 통해 지리학자들이 쓴 『아시아』라는 책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해외 지역 연구는 지리학도의 취업과 관련한 실용적인 목적과 한국 지리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 지리학계에서 해외에 전문 연구지역을 정하여 꾸준히 연구해 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지, 교육적 차원에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교원 양성에 필요한 세계지리 교육의 일부로서 광역의 세계지리가 지극히 피상적인 수준에서 강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교에서의 강좌가 아시아지리, 아메리카지리, 아프리카·오세아니아 지리, 유럽지리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도록 설정됨으로서 깊이 있는 강의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어로 된 적당한 교재가 극히 드물어 세계 전체를 커버하는 World Regional Geography나 Geography, Regions and Concepts 등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기타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강의를 맡은 강사도 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도 높은 강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어로 된 교재가 출판되고, 해외 지역 연구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지리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晩時之歎이 있긴 하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 지역 연구는 오랫동안 지

리학의 핵심과제였는데, 20세기 후반 들어 공간과학을 추구하는 전통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의 많은 지리학자들은 해외 지역연구를 자신의 주요 연구 목표로 삼고 필드워크 등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내고 있다. 참고로 버클리 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박사 학위 논문의 약 90% 정도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도 요즘 '세계화(globalization)'가 유행어가 되면서 해외지역에 대한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고, 해외지역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도 급증하고 있다. 참고로 1994년 한 해 동안 학술진흥재단에서 해외지역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비만 해도 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리학계에서 해외 지역연구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인류학, 사회학, 동·서양사학, 외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해외지역 연구를 먼저 시작하였고, 이들이 해외지역 연구의 전문가로 자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非地理學者들이 해외지역 연구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리학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야 할 분야에 지리학자들이 거의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해외지역 연구를 하는 목적은 해외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가 되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해외지역과 한국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지리학은 국학이다'라는 식의 한국 지향적 사고는 저자가 애기하는 대로 지리학적 사고를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저자는 "서양사를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전, 『라틴아메리카 지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정치 시사를 중심으로』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주장을 공박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서양사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서양사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나아가 인간의 행동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적 원리와 다양성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과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말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외국에 대해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이 판단준거(reference point)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거꾸로 나만 연구하고 다른 사람을 알지 않으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해외 지역 연구의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들자면 여러 나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연구 대상 지역에 살면서 자기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비하여 학문적 독창성이나 깊이가 부족할 염려가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 일년쯤 살면서 한국에 대하여 연구한 뒤 한국 전문가로 행세한다면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학문적 독창성이나 깊이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해외 지역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당국가의 언어를 익히는 것, 해당국가에서 발행되거나 해당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신문, 방송, 주간지, 학술지)을 정기적으로 접하면서 그 나라(또는 지역)의 사정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잦은 여행이나 현지조사를 통해서 연구대상지역의 문화에 젖어 드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므로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정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연구지역을 좀더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타학문분야에서 해외지역연구를 하는 학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세계지리 강의도 좀 더 세분화하고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각자 해외의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지리학계가 앞으로 해외지역 연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각자 일찍부터 해외의 한 나라나 지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삼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외국에 각각 필드를 한 군데씩 정하는 것이 좋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는 노력여하에 따라 학위 논문이나 기타 연구를 위해 외국에 필드워크를 하러 가는 것이 연구비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인류학계에서는 학위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외국에 필드워크하러 나가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리』는 이러한 한국지리학계의 국제화를 위한 시도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지리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똑같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저술하더라도 저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내용이나 관점에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렇듯 지리학자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출판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해외 지역에 대한 책이 주제 중심이기 보다는 각 나라 별로 몇 가지 기본 사항을 나열하는 식으로 저술되기 쉬운데 반하여 이 책은 토착문화, 식민지 경험, 토지제도, 다양한 문화, 경관의 순으로 집필하고 후반부에 지역별, 국가별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국에 해외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더군다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렇듯 한 사람이 많은 자료를 모아 책을 집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자의 노력을 박수로 치하한다.

본인의 아시아 지리 강의 경험에 의하면 세계지리는 대단히 어렵고 재미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의 고대에서 현대까지, 그리고 자연환경에서 정치·경제·문화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만, 한번 빠져들면 그 재미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동남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하여 유럽근·현대사를 읽고, 미국사, 일본사, 중국사, 세계공황 등에 대하여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움에 해당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월남전과의 관계, 유럽의 전쟁이

나 산업혁명과 식민지 사정과의 관계, 향료생산과 유럽중상주의에 따른 동남아에서의 헤게모니 각축, 일본의 근대화와 태평양전쟁과의 관계, 식민통치 구조와 현대 동남아의 도시체계나 산업구조와의 관계 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다. 이렇듯 자유자재로 연결되는 주제를 다루는 해외 연구는 어렵지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리』에서는 저자가 라틴아메리카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알기 쉽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漢字의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불필요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을 위해 바람직한 노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때로는 지나쳐서 '화경(火耕)'을 한글로만 표시하여 그 뜻을 알기 어렵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면 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도가 제시되고 이를 근거로 설명이 이루어지면 지리학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지도가 몇 장 밖에 없다는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탓으로 여겨지지만, 앞으로 개정판을 내거나 다른 지역에 대한 책을 낼 때는 다양한 지도의 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자면 78~81쪽에 하시엔다와 플랜테이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

것은 독자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여겨진다. 또한 2~6장에 걸쳐 라틴아메리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7~10장까지 라틴아메리카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은 좋은 시도로 본다. 또한 부록으로 각 章別 연습문제를 실은 것도 돋보인다. 마지막에 라틴아메리카의 발전론에 대한 해설을 실은 것도 좋아 보인다. 찾아보기에서 인명과 지명을 구분한 것도 좋다. 232~233쪽에 걸쳐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한 것도 시사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6장 2절 각국의 주요도시와 도시인구 파트에는 각국의 주요도시를 표시하는 지도가 꼭 들어갔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전체적으로 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라틴아메리카 지리 입문서로서 훌륭한 시도로 판단한다. 앞으로 저자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좀 더 깊이 있고 좀더 세분화된 여러 책과 논문을 계속 출판하기를 기대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의 다른 지리학자들도 『라틴아메리카 지리』와 『아시아』의 출판을 계기로 해외 지역에 대한 책을 많이 출판하고 연구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李廷滿: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